

[길을 덮은 마음 옷]

날마다 새 마음 주시고
내 안에 영으로 말씀하시는
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
작은 하늘 되돌려 드립니다,

한 마음의 열린 하늘 노래하고
말없이도 참-좋은 형제.자매
저 하늘 위 함께 부를
영혼 들의 찬송이게 하소서,,

2008.3.14

작은 김희재

[글 머리에]

이 시는 시가 아니다. 가슴 저린 아픔을 마음의 흐름을 따라 숨김없이 토해낸 내면의 소리없는 아우성이다.

이 시는 이 생의 허탄(虛誕)한 자랑을 일삼는 이름없는 어느 시인의 한담(閑談)도 풍유(諷諭)도 또한 아니다.

이 시는 진지한 마음의 간구하는 영으로 써내려간 하늘 향한 쓰라린 고백이다.

이 시는 또한 내 안에 영으로 말씀하시며, 믿음 안에 이같은 마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정작 저자라면 저자이다 (懇求하는 靈).

바로 이 점이 형제.자매들에게 이 시를 한-상 차려놓고, 마음 한-길 뿌려놓고

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노래의 하늘 강가로 초청하는 유일한 이유다.

덧붙이는 이 자작시 해설을 쓰면서도 나의 손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.

주여. 우리로-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증거이게 하소서.

이 시의 전체 구성은 3 편으로 되어 있는 바, 3 은 하늘의 수로서 하늘 뜻을 상징하고 있다.

제 1 편이 8 행, 2 편도 8 행, 3 편은 72 행 [=8 행*(3*3*3 하늘의 수)으로 구성된 바, 모두 합하여 총 88 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의 새 날을 대망(待望)한 것임.

서론.총론.각론의 3 부작 주지시로, 특히 3 편은 2 편의 시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 음절을 좇아 그것을 각 행의 첫 글자로 시작하였고, 그리하여 모두 4 부작으로 나누어져 있다.(逐字各論詩)

또한 덧붙일 것은, 1 편이 4 연, 2 편은 4 연, 3 편도 4 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, 4 는 땅의 수로서

이 땅의 몸부림을 상징하는 것임.



하늘 맘의 강이 되어 (V)

-마른 하늘, UTAH 의 험한 계곡 쏟아지니---

제 1 편: 序詩(들어가는 노래)

눈 덮인 산하에도

하늘 꽃은 절로 피고

밤을 지낸 처마 끝엔

순정같은 어름 대롱 주저-리 주저-리 열리건만,

달도 없이 별도 없이

홀로 짓는 광야에선

천지(天地)간 잇댄 줄로

저어기 내 마음의 다리를 놓을지라.

[주석]

순정: 순수한 마음의 순정(純情)과 순도 100%의 수정인 순정(純晶)을

아울러 나타내는 중의법(重意法)의 표현임.

짓는:지어가는

제 2 편 : 총론시(總論詩)

(I)

힘한 세상 아무도-
함께하는 아픔이 없고,

(II)

동토의 땅 누구 하나-
돌아보는 믿음 없네.

(III)

저편 너머 들녘은-
배교의 바다 이루었고,

(IV)

우리런 저 하늘-
별마다 종말을 고하네.

[주석]동토:凍土. 얼어붙은 땅

제 3 편 : 축자 각론시(逐字 各論詩)

(1) 험한세상이무도함께하는아픔이없고

험한 세상 저만-치 살아갈 때에도
한결같은 마음의 소망 있게 하시고,
세월의 서리 맞은 들쥐가 될지라도
상처 받은 별들을 품어 안은, 영혼의 팔이 되게 하소서.

아는 이 하나 없는 독한 생의 언저리에서
무딘 가슴 홀로 있게 마옵시고
도도히 흐르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소서.

함께하는 주의 영이 있기에
깨어난 새 생명의 기도하는 숨결마다
하늘 저편 구름 같이- 이 땅을 노래하는 들풀 같이-
'는'으로도 이어가는 한 줄의 꾸밈없는 시가 되게 하소서.

아침 햇살 초롱-한 눈꽃을 따다가
품 속 깊이 하늘 맘을 심어두고
이 한세상 울리는 하아얀 '순수'를 노래하게 하소서.
없는 듯 생생한 하늘 언어 마를 날 없고
고난 중에 기쁨의 강산은 하늘 끝에 닿았으니
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지로다.

[주석] 울리는(4 연 3 행):울려 퍼지는 공명(共鳴)의 마음과,

눈물 흘리며 울게하는 저런 가슴(嗚咽)을 아울러 의미하는 중의법의 표현임

(Ⅱ) 동토의 땅 누구 하나 돌아보는 믿음 없네

동토의 땅 차가운 어두움 속에서도
토설하는 아픔의 진-지한 고백있게 하시고,
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
땅 속 깊이 영원 속의 하늘 한 점 남겨두게 하소서.

누구를 위하여 나의 종을 울릴꼬?
구구절절 뉘 뜻 좇아 내 가슴의 하늘 종을 울릴꼬?
하나님, 하나님, 나의 하나님.
나로- 하늘 향한 존재의 이유되고,
나를 향한 주의 뜻이 되게하여 주소서.

돌아보는 세월 속 영욕의 잔 가져다가
아무도 가지 않은 새 소망의 언덕에서
보지 못한 기쁨의 눈물 젖은 새 술을 부으리니
'는'으로도 이 시를 이어가게 하시고, 구름 같이 하늘 노래 계속하게 하소서.

믿음 없는 영혼은 밤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고
음란한 군상들은 하늘강의 달을 알지 못하니,
없는 듯 생생한 언어. 아무 것도 없어나 모두 가진 모국어로
네 안의 영혼의 뜰 안에서
함께하는 숨결의
섬-을 얻은 평강의 노래를
모두 함께 부르게 하소서.

[주석]

토설(1 연 2 행): 吐說, 토해내듯 말하다 영욕(2 연 6 행)榮辱 영화와 욕스러움

음란(3 연 2 행): 특히 불신, 배교를 뜻함. 군상(3 연 2 행)群像 무리.떼

(III) 저편너머들녘은배교의바다이루었고

저편 너머 얼룩진 돈의 피발-

편편절절(片片切切) 수(數)를넣은 회한한 종이 위엔

하늘 형상(形象; IDOL) 얼굴이 어지러이 떠돌고,

너나 없이 하나되어 썩어질 장막 문에 쌓아두니

머나 먼 생의 향로- 죄의 노(櫓)만 힘겹게 저어가네.

들녘을 가로지른 저녁 놀의 하늘 외침

역력한 붉은 홍수 애잔(哀殘)한 노랫말이런가.

은은한 정적 속- 주의 그 날 말없이 손짓하고 있도다.

배교의 바다- 이단의 하늘-

교리의 뺨뿔림은 태산을 이루었고

책망의 준엄함은 안개 같이 사라져,

의(義)의 구부러진 활시위만 허다한 무리의 허기진 배를 향하고 있도다.

바다 같은 헤아림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어,

다함 없는 죄악의 몸부림은 한 울 안에 모두 하나 이루었네.

이리 간들 무엇하며, 저리로 가 본들 무슨 소용 있으리요.

‘루하마’ 친 백성의 광기(狂氣)어린 기쁨 찬송. 경건한 주문 한 번 들어 보소.

엇댄 떠줄 악의 사슬 주의 전(殿)에 가득-하니,

고통 산은 높아 가고, 영원 불못 깊어 가네.

[주석] 1 연 2 행 편편절절:(가로.세로)잘린 조각.조각. 돈의 장방형의 걸모습을 하얗은 종이 조각으로 풍자한 것임

1 연 2 행[수를 넣은 회한한 종이]:얇아없어질 폐지 위에 숫자를 새겨넣어 가치를 매긴 회한한 돈

1 연 3 행[하늘 형상]: 여기서 형상이라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(形狀/IMAGE)을 따라 지음 받은 본디 고귀한 사람

얼굴과 우상이 되어버린 회한한 돈위에 아로새긴 얼굴 형상(形象/IDOL)을 아울러 뜻하고 있음. 생계의 수단이

되어야할 돈이 생의 목적으로 전도(轉倒)되고 모든 가치를 매기는 가치 척도요, 섬기는 신(神)이 되어버린 현세의

한심한 작태를 두고 날카로운 풍유로 통절히 비판한 것임.

2 연 2 행 애잔한: 구성진. 슬픔으로 남아있는 3 편 III 5 연 2 행 루하마:구약 성경 [아모스]를 보라

5 연 2 행 주문:마음 없는 신앙 고백을 빚댄 말로(풍유법), 저편 너머 무당의 주문(呪文)같은 가슴 벅찬 설교이자, 자기 위한

하나님께 자기 영광 간절히 구하는 회한한 하늘 주문(注文). 중의법의 표현임.

(IV)우러린저하늘별마다종말을고하네

우-러--런---

저 하늘-

별마다 종말을 고하지만,

저편 너머 소망산에 내 마음을 걸어두니-

하늘 강가 무지개가 절로 일고,

늘-같은 하늘 이편, 재림산엔-

별들이 노래하는 하늘 곡조 울리리니,

마음마다 설레이는 이 땅의 소망이요

다함없는 영광의 하늘 광채이로다.

종일종야 죄를 심고 악을 먹는 영혼과 영혼들---

말씀없는 어둠의 밤 깊어만 가나니,

을씨년스럽게 겨울 강가 홀로 앓은 비통을 토하리로다.

고뇌하는 영혼의

하늘 받든 두 손에도-

네 마음 절로 이룬

심판의 붉은 씨를

모두-함께 거두리로다.